■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민주주의 제목 :기독교 민주주의 성경:**사도행전 15장 1-21절**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행15:1-21)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사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강조함.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함.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과 다투게 됨.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총회를 열 것을 계획함.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준수를 요구함.

-오래도록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심.

.율법은 조상들도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보고함.

-교회의 대표격으로 있는 야고보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함.

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암9:11)

12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9:12)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함.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즉 유대인들은 모두 이런 전통이 있으므로 그들의 전통과 정서를 너무 무시하지는 말아야 하리라.

-대단히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회의. 이로써 선교에 동력을 얻게 됨.

-좋은 결정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기독교 민주주의 또는 교회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발전하였다.

특징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한다.(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결코 한 사람의 계시로 결정하지 않는다. (분명히 신주주의를 지향하되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계시로 인정하는 것을 조심한다. -개인적으로는 결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뜻.)

-모든 사람은 평등하나 결정권을 다수결에 맡기지 않고 대표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맡긴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대표로 목사를, 회중의 대표로 장로를 꼼꼼하게 선정하여 이 두 그룹이 당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오늘날 이 원칙이, 특히 목사를 세우는 원칙이 무분별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담임목사로부터 인정 받아야 신학을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원칙에 의해서 교회의 당회를 위한 노회 파송 목

사를 세우는 날이다.

-교회는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 교회가 있다.
-또는 자립을 기준으로 자립교회 미자립교회가 있다.
-세례교인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장로 2인, 목사 1인 이상이 되어야 당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세례 받은지 7년이 경과 해야 장로과 될 수 있다.
-교회가 연합하여 노회를 노회가 연합하여 총회를 만든다.
-노회 구성원은 목사와 장로다.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여 총회에 보낸다. 중요한 헌법 수정은 총회에서 결정하여 노회에 다시 묻는다.
-총회는 년1회 실시되며, 매번 새로이 총회장을 결정한다. 총회장이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임원제도를 두어서 총회장은 임원 시절을 거쳐서 당선되도록 한다.
-이단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교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현상이 있고, 교주는 죽을때까지 결정권을 소유한다.

-단점; 매년 치루는 선거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
-매년 회장이 바뀌므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옛것을 익혀 새것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장로교는 지금 다시금 새롭게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모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겸허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찬양예배>

주제 : 제목 : 말씀 :